KARDIAN
카 디 안 자 산 운 용

판매회사 내부직원용

카디안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6-572호(2026.11.10 ~ 2027.01.31)

카디안 업종일등 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2026년 10월말 기준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

- 리스크관리팀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261억 원

펀드유형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주식 편입비 :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04년 12월 21일)

- 클래스 A : 2010년 08월 12일
- 클래스 A-E : 2014년 06월 11일
- 클래스 C-E : 2012년 02월 13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 : 2015년 08월 20일
- 클래스 C5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S : 2014년 04월 22일
- 클래스 S-P2 : 2017년 05월 23일

벤치마크 KOSPI 100%

신탁업자 SC제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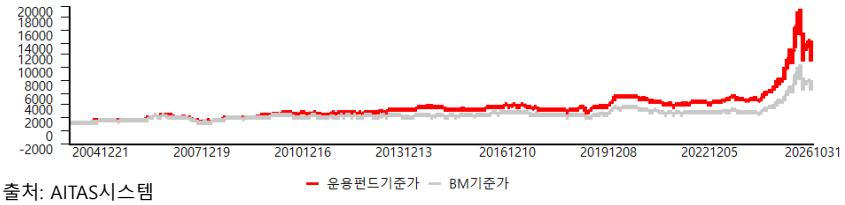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16.35%	-11.23%	-16.39%	41.39%	135.41%	185.88%	132.32%	1,056.01%
클래스 A	-16.48%	-11.60%	-17.06%	39.19%	128.17%	172.61%	114.09%	312.03%
클래스 A-E	-16.44%	-11.49%	-16.87%	39.83%	130.27%	176.47%	119.36%	214.84%
클래스 C-E	-16.49%	-11.62%	-17.10%	39.06%	127.73%	171.82%	113.04%	234.26%
클래스 C-P2(연금저축)	-16.46%	-11.55%	-16.96%	39.52%	129.25%	174.56%	116.74%	169.95%
클래스 C5	-16.49%	-11.62%	-17.10%	39.07%	127.75%	171.84%	113.05%	282.99%
클래스 S	-16.44%	-11.48%	-16.84%	39.92%	130.56%	176.96%	119.99%	230.71%
클래스 S-P2	-16.43%	-11.44%	-16.79%	40.12%	131.27%	178.44%	122.32%	250.53%
벤치마크	-16.19%	-13.11%	-13.16%	39.52%	124.19%	151.57%	92.91%	548.05%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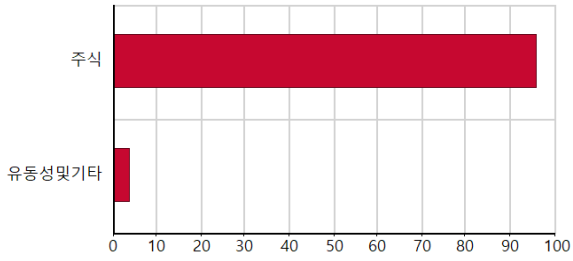


출처: AITAS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10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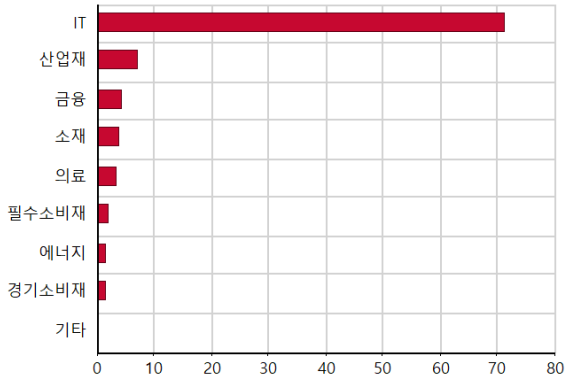
<전체>

순위	자산명	비중(%)
1	주식	96.0
2	유동성및기타	4.0



<주식 업종별>

순위	업종명	비중(%)
1	IT	71.5
2	산업재	7.2
3	금융	4.6
4	소재	3.8
5	의료	3.3
6	필수소비재	2.3
7	에너지	1.8
8	경기소비재	1.4
9	기타	0.0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6년 10월말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30.1
SK하이닉스	전기·전자	22.7
SK스퀘어	금융	3.3
삼성전기	전기·전자	3.2
삼성SDI	전기·전자	2.5

종목명	업종명	비중(%)
LG에너지솔루션	전기·전자	2.2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	2.1
삼아알미늄	금속	1.6
삼성생명	보험	1.2
삼성물산	유통	1.2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KARDIAN
카 디 안 자 산 운 용

판매회사
내부직원용

카디안 업종일등 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2026년 10월말 기준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675% (판매 0.9%)
- 클래스 A-E : 총 연 1.175% (판매 0.4%)
- 클래스 C-E : 총 연 1.775% (판매 1%)
- 클래스 C-P2(연금저축) : 총 연 1.425% (판매 0.65%)
- 클래스 C5 : 총 연 1.775% (판매 1%)
- 클래스 S : 총 연 1.125% (판매 0.35%)
- 클래스 S-P2 : 총 연 0.975% (판매 0.2%)

(공통사항)

운용 0.72%, 신탁 0.04%, 사무관리 0.01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납입금액의 1.0% 이내
- 클래스 A-E : 납입금액의 0.5% 이내

후취수수료

- 클래스 S : 환매금액의 0.15% 이내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10월 KOSPI는 전월 대비 16.19% 하락한 5,730.74pt, KOSDAQ은 15.3% 하락한 724.38pt로 마감했습니다. KOSPI는 10월 2일 7,003.74pt로 7,000pt 선을 잠시 회복했으나, AI 투자 수익성과 반도체 이익 지속성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 매도하며 6,300pt까지 밀렸습니다. 중국 CXMT의 메모리 추격과 공급 확대에 따른 경쟁 우려, 미국 9월 소비자물가의 예상치 상회, 코어위브 채권 급락에 따른 AI 자금 조달 우려가 겹치며 두 시장 모두 매매 일시정지 장치(매도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습니다. 월 후반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종료로 매수세 공백이 생기며 10월 26일 5,469pt로 저점을 찍었으나, 호실적과 신규 자사주 매입 발표로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형 기술기업의 현금흐름 악화와 AI 투자 부담이 다시 부각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호조에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KOSDAQ은 이런 우려와 미국 금리 부담이 성장주 전반으로 번지며 반도체 소부장, 로봇, 바이오, 2차 전지 등 시가총액 상위 업종 중심으로 낙폭이 커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 음식료, 보험이 강세, 조선, 기계, 정유가 약세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5.30원(전월 대비 -1.70%), WTI 유가는 104.12달러(+6.46%)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19.5조원을 순매도한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4.8조원, 4.1조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조선, 인터넷, 반도체 등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전자부품, KOSDAQ150 IT, 화장품 업종이 성과에 부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SK스퀘어, SK하이닉스, 한화오션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이수페타시스, 삼아알미늄, LIG넥스원 등이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조선, 건설 및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AI 반도체 핵심 공급망, 2차 전지, 바이오 대형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AI 반도체 핵심 공급망의 경우 AI 투자 확대 수혜가 예상되고 3분기 실적도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압축하였습니다. 2차전지의 경우에는 ESS 수주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였고 바이오 대형주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선의 경우 원화 강세와 조업 일수 감소로 인해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건설업종은 원전 발주 지연 및 고금리에 따른 부정적인 매크로 환경을 감안하여 비중을 축소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11월 KOSPI는 10월 급락에 따른 과매도 인식과 AI 투자 수익성 우려 완화로 점진적인 회복을 예상합니다.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과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덜 적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점도 금리 상승 압력을 낮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등락이 클 수 있습니다. 3분기 미국 대형 기술기업 실적으로 AI 산업의 성장세는 재확인됐지만, 투자 지출이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보다 빠르게 늘면서 투자금 회수 기간과 자금 조달 부담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졌습니다. 인텔 사례처럼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수요가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11월에도 경계심은 이어지겠지만, 월말까지 이어지는 실적 발표를 거치며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0월 FOMC는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9월 금리 인상 이후 금융 여건이 긴축적으로 바뀌었고, 높은 물가는 추가 지표를 보며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이미 12월 인상에 대비하고 있어 증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중간선거 이후 불확실성 해소로 증시가 올랐던 과거 패턴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최근 불안의 핵심은 정치보다 AI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어서 효과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수의 추가 하락을 걱정하기보다는, 많이 떨어진 AI 관련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지수는 탐욕보다는 비관이 팽배해 있어 지금의 주가 조정은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장의 판단 기준으로는 미국 10년물 금리 5% 하회, Brent 유가 100달러 하회를 본격적인 Risk-on 신호로 판단하며, 미국 10년물 금리 5.3% 상회, Brent 유가 105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재차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업종 측면에서는 반도체와 AI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10월까지 이어진 반도체 수출 증가와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를 감안하면 국내 기업의 이익 모멘텀은 여전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가장 강할 것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산업정책 변화 가능성과 미국 전력 부족 문제를 감안할 때 ESS·전력기기·신재생에너지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는 특정 정당의 승패 자체보다 선거 이후 행정부와 의회의 권력구조, 재정지출·세액공제·에너지·AI 인프라 관련 정책의 실행 가능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증설로 미국의 전력 공급 부족 문제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송배전망, 변압기, 전력기기, ESS 및 일부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정치적 결과와 무관하게 중장기적인 투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정책 불확실성으로 월초 관련 종목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미국 매출 비중과 수주잔고가 높은 전력기기 및 ESS 기업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비중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11월 중순 이후 미국 물가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미국 10년물 금리가 안정될 경우 성장주의 상대강도가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바이오·헬스케어·화장품 등 장기 성장성이 높은 업종으로 수급이 확산될 수 있어 해당 업종에 대한 비중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0월말부터 11월까지 본격적인 3분기 실적 발표 구간에 진입함에 따라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및 종목을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알파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11월말에 예정되어 있는 금통위에서는 25bps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기준금리는 3.0%에서 3.25%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금리가 상승 추세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가 조정 시 은행 및 보험에 대한 비중을 재차 상향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포트폴리오 리스크 분석 (2026-10-30 기준)

리스크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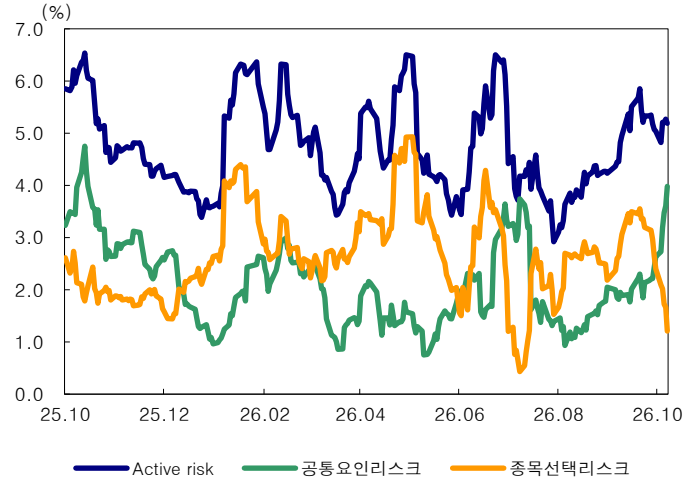
	2026-10-30	2026-09-30
Active Risk [1]	5.96%	4.45%
공통요인 리스크 기여도 [2]	4.82%	1.82%
- 스타일 리스크 기여도	9.71%	1.95%
- 섹터 리스크 기여도	-3.88%	-0.13%
종목선택 리스크 기여도 [3]	1.14%	2.64%
베타	1.03	1.08

1. Active Risk는 벤치마크 대비 펀드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으로 공통요인 리스크와 종목선택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Active Risk 수치가 높을수록 펀드가 벤치마크에 비해 적극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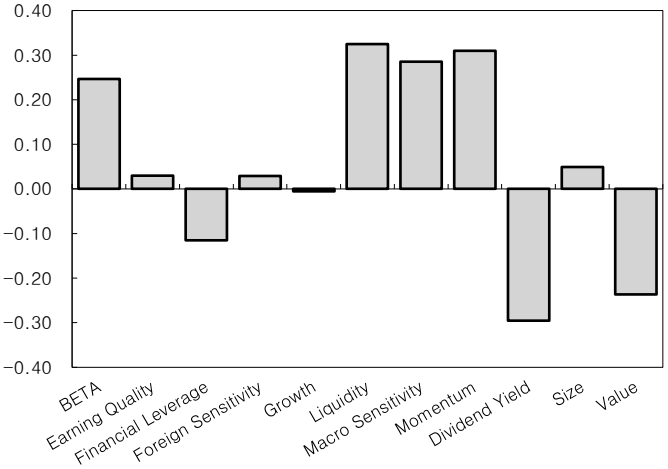
2. 공통요인 리스크는 스타일 및 업종 리스크와 공통요인간의 상관관계로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 합니다.

3. 종목선택 리스크는 경영성과, 노사분규 등과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공통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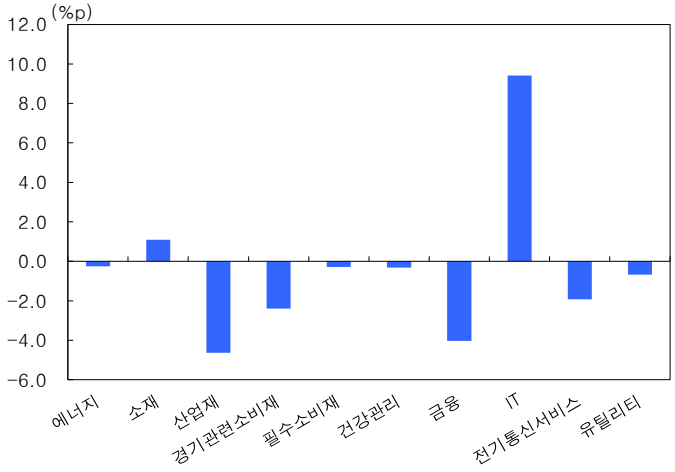
<Active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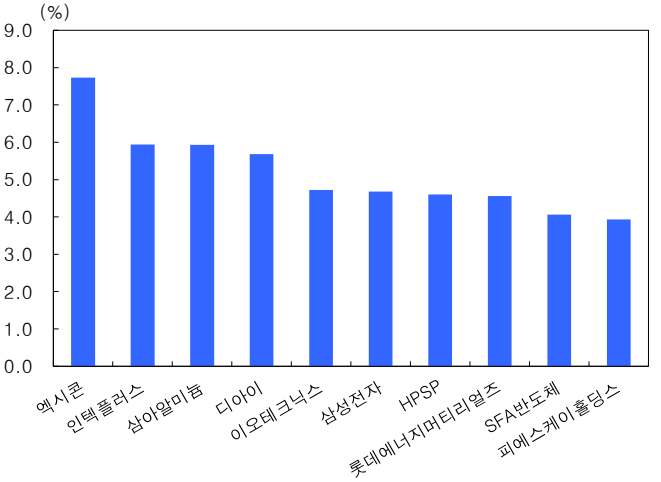
<벤치마크 대비 스타일 비중차>



<벤치마크 대비 섹터별 비중차>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



분석 결과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는 9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10월말 현재, 업종일등증권1[주식] 펀드의 Active Risk는 5.96%로 전월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종목수는 전월대비 4개 종목 감소하여, 86개 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성향은 변동이 없었으나, 벤치마크 대비 '산업재', '금융' 등의 비중 차이는 증가하였고, '건강관리', '필수소비재' 등의 비중 차이는 감소하였습니다.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9월말 기준으로는 '디아이'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상승하였고 '삼아알미늄'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종목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월대비 감소하였고, 종목집중 위험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동펀드는 'Dividend Yield'보다는 'Liquidity'가 높은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KARDIAN
카 디 안 자 산 운 용